

## 영어학습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자원 사용에 대한 연구

우수정

건양대학교

## Linguistic Resources in English Learners' Texts

Woo, Sujung

Konyang University

 OPEN ACCESS



<https://doi.org/10.18627/jslg.36.4.202102.469>

pISSN : 1225-4770

eISSN : 2671-6151

**Received:** January 11, 2021

**Revised:** January 29, 2021

**Accepted:** February 08, 2021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21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6.4, 469-486. The study examines the linguistic resources used in the self-introduction produced by English learners at university level. According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 language is functional. Whether the learners are novices or proficient users, employ language as linguistic resources to make meanings. Moreover,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play important roles when making choices among those linguistic resources. The study aims to determine what linguistic choices the English language learners make in order to make meanings in their writing. Following the SFL theoretical framework, the study looks at the English linguistic resources in terms of three metafunctions. For the ideational metafunction, the content words, prepositional phrases, and adverbial clauses are examined to see what the learners try to convey through the texts. For the interpersonal metafunction, verbal phrases are looked at to understand how the learners form the relationship with the reader through their linguistic choices. Furthermore, the thematic development of the texts is examined to see how the learners develop their introduction to perform the textual metafun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English learners demonstrate a certain degree of limitations in utilizing the linguistic resources in terms of all three metafunctions. **(Konyang University)**

**Keywords:**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ideational metafunction, interpersonal metafunction, textual metafunction, English learners' texts

### 1. 서론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으로 인해 원하는 영어 단어를 찾고 틀린 문법을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원하는 단어와 표현을 쉽게 찾아주고 문법도 클릭 한 번으로 교

정해 줄 수는 있지만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른 적절한 표현과 그 표현의 적합한 뉘앙스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문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넘어 언어 사용자가 맥락에 맞게 어휘와 문법을 잘 선택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원하는 의도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표현과 문법을 골라서 표현해야 하는 것은 그 언어가 모국어이든 외국어이든 마찬가지이다. 다만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 초급 학습자에게는 고급 학습자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언어자원(linguistic resources)의 차이로 인한 표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어느 경우이든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과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자원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Derewianka and Jones, 2011).

문법과 어휘는 의사 표현을 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언어적 자원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어휘와 문법을 선택하여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게 하고 문법을 배워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배운 어휘와 문법이 글 또는 말을 생산함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언어자원이며 그들이 글 또는 말을 할 때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어적 요소들을 의미생성자원(meaning making source)으로 인식하고 언어의 기능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을 들 수 있다. 체계기능언어학은 Halliday(1985)를 토대로 한 이론으로써 최근 텍스트에 대한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하고 있다(Eggins, 2004). 체계기능언어학의 분석 틀은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응집 장치 또는 담화 표지, 어휘 다발 등 텍스트의 부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전체적으로(as a whole) 살펴보고 내용과 저자 또는 화자가 텍스트를 통해 표현하는 태도와 전반적인 텍스트의 구조가 글의 목적과 사용된 사회적 맥락에 맞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관념적(ideational), 대인적(interpersonal), 텍스트적(textual) 의미를 언어가 갖는 메타기능(metafunction)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언어 사용자에 의해 목적과 맥락에 맞는 언어의 기호 체계 내에서 언어적 선택함으로써 실현된다고 주장한다(Eggins,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체계기능언어학의 틀을 기반으로 대학생들이 쓴 영어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학습자들이 어떤 의미생산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하는지를 체계기능언어학에서 말하는 언어의 세 가지의 메타기능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관념적 메타기능을 위해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어(content words), 즉 명사와 동사를 살펴보고 나아가 글을 자세히 또는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자원을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영어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또한 그 관계를 어떤 태도 또는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조동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텍스트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그들의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와 문법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언어자원을 통해 어떻게 의미를 만들고 전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 2. 이론적 배경

체계기능언어학은 Halliday(1985)로 시작된 이론으로 언어가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생산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구

조화되는지에 중점을 둔다. 또한 체계기능언어학에 따르면 같은 의미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마다 다른 어휘나 문법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말과 문법 형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 말의 기능이 결정된다고 한다 (Thompson, 2014). 이는 문법요소를 하나의 유연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대화 참여자들 간의 관계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 의사소통 양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Halliday, 2004). 따라서,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언어가 의미를 만드는 기능적 도구로 인식하고 그러한 기능을 온전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맥락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맥락은 문화적 맥락과 관련되는 장르(genre)와 상황 맥락과 관련되는 사용역(register)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용역은 언어의 세 가지 메타기능 - 관념적, 대인적, 텍스트적-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층위적 구조를 이루어 언어의 체계적인 의미 체계를 보여준다. 다음은 체계기능언어학의 장르와 사용역, 메타기능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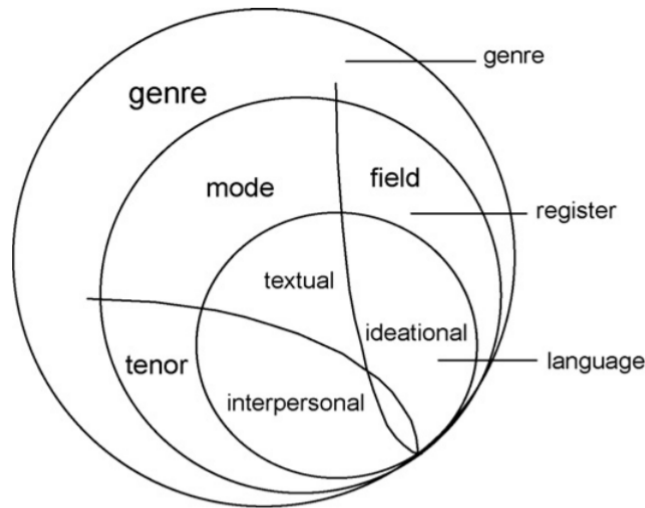


그림 1. 언어와 사용역, 장르와 관련한 메타기능(Martin, 2009: 12)

위의 그림에서처럼 사용역은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장(field)은 텍스트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주체(tenor)는 화자와 청자 또는 저자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와 관련된 영역이며 마지막으로 양상(mode)은 텍스트가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와 관련된 영역이다. 그리고 각 영역은 세 가지 메타기능으로 대응되며 실현된다. 먼저 관념적 메타기능(ideational metafunction)은 우리가 내면적 또는 외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표상하는 기능을 하며 대인적 메타기능(interpersonal metafunction)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참여자들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 어떻게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적 메타기능(textual metafunction)에서는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며 응집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는지 등의 전체적인 구조와 전개되는 방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세 가지의 메타기능은 문법적 요소를 통해 실현되는데 다음은 Schleppegrell(2004)가 Halliday(1989; 1994)에 근거하여 문법과 상황적 맥락을 나타내는 사용역과의 관계가 어떤 문법적 요소로 실현되는지를 설명한 표이다.

표 1. Grammar and the Context of Situation (Schleppegrell, 2004: 47)

Contextual Variables	Linguistic Realization
Field (Presenting ideas)	Ideational choices Noun phrases/nominal group (participants) Verbs (process types) Prepositional phrases, adverbial adjuncts, and other resources for information about time, place, manner, etc. (circumstances) Resources for making logical relationship
Tenor (Taking a stance)	Interpersonal Choices Mood (statements, questions, demands) Modality (modal verbs and adverbs) Intonation Other resources for evaluative and attitudinal meaning (e.g. resources for appraisal)
Mode (Structuring a text)	Textual Choices Cohesive devices, including conjunctions and connectors Clause-combining strategies Thematic organization

Halliday와 Matthiessen(2014)은 기존 문법에서 품사 즉, 명사나 동사 등과 같은 구분은 단지 문장의 구조적인 부분만을 나타내며 그 문법적 요소가 갖는 기능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각 기능이 실현되는 문법적 요소를 기존 문법에서의 명칭과는 구별된 명칭을 사용한다. 먼저 관념적 메타적 기능을 실현하는 요소로는 명사(구)와 동사(구), 전치사구, 부사절이 있는데 이는 각각 참여자(participants), 과정(process), 환경(circumstances)으로 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분석틀을 사용함으로 기존 문법의 명칭이 아닌 체계기능언어학의 명칭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체계기능언어학은 단순히 문장 단위의 문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글을 쓸 때 전반적인 텍스트에서 사용한 언어자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석이론과 다르고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좀 더 실질적이며 유용한 분석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Gebhard, 2010). 이에 언어교육 특히 글쓰기와 평가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을 토대로 한 분석틀을 적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Schleppegrell (1998; 2004; Achugar et al., 2007)의 연구로 그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영작문을 대상으로 체계기능언어학적 평가 도구를 적용하여 학생들 작문의 특성과 주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였고 각 수준별 학생들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향후 학생들의 영어 작문 지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언어교육 분야 외에도 다양한 텍스트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승연(2016)은 사회과 텍스트 분석에 전통적인 비판적 담화 분석 틀과 체계기능언어학 분석틀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Fang(2004)은 과학 분야의 글을 분석하는 데에 체계기능언어학의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체계기능언어학의 분석틀은 국어교육 특히 국어 문법교육의 평가틀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관규, 2018).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을 살펴보면 결국 언어는 기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은 어휘와 문법 등의 언어적인 자원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적절한 선택을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은 그 언어 사용자의 장점과 단점 또는 전체적인 언어적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영어 학습자 텍스트에 적용하여 분석하면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자원의 한계를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좀 더 어휘와 문법과 같은 언어자원을 풍부하게 하여 더 나은 언어 사용자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분석대상 및 방법

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에서 텍스트 분석은 그 텍스트가 쓰인 목적과 참여자 간의 관계, 사회적 맥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 영어 원어민 교수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 말하기 수업의 첫 시간에 학생들이 영어로 작성한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이 수업은 교양 선택 교과목으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으며 이 수업의 수강 조건은 토익 점수 600점 이상의 수준을 요구한다. 이 수업의 첫 과제로 학생들은 “Please introduce yourself in detail”이라는 교수자의 간단한 지시에 따라 영어로 본인을 소개하는 글로 썼는데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향후 자기소개를 영어로 발표하기 위함이며 발표의 분량에 대해서는 약 1분 정도의 말하기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쓰게 하였고 이에 대한 샘플을 교재를 통해 제공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텍스트는 총 51개의 텍스트로 학생들이 1차로 작성한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 수업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강하였으며 이 수업을 수강하기 위한 조건은 토익점수 600점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51개의 모든 텍스트는 AntConc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어휘 및 문법 요소의 빈도수를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텍스트에서 사용된 언어자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를 체계기능언어학의 기능문법(Halliday and Matthiessen, 2014; Thompson, 2014)에 근거하여 분류한 후 그 기능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요약한 표이다.

표 2. 분석틀

영역	메타기능	분석 요소	질문
장(Field)	관념적 메타기능	참여자: 명사, 대명사, 명사구	어떤 내용의 글인가?
		과정: 동사	
		환경: 전치사구, 부사절	
주체(Tenor)	대인적 메타기능	양태(modality): 서법, 조동사	저자는 독자와 텍스트를 통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평가(appraisal): 형용사, 어휘적 요소	
양상(Mode)	텍스트적 메타기능	응집성 및 일관성: 주제 전개 패턴	텍스트는 특정한 주제를 시작으로 일관성있게 전개되는가?

앞에 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전통 문법의 문법요소에 대한 명칭 즉,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이러한 문법 요소들의 언어적 기능을 강조한 참여자(participants), 과정(process), 환경(circumstances)과 같은 명칭으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체계기능언어학의 기능문법의 틀을 따라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텍스트가 무엇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언어의 관념적 메타기능 분석을 위하여 명사(구)와 동사, 전치사구, 부사절 등으로 실현되는 참여자와 과정, 환경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통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분석하고자 대인적 기능을 하는 언어적 요소 즉 조동사의 사용 양상과 텍스트의 서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적 메타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텍스트 내의 절들이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주제의 전개 패턴(thematic development)을 분석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관념적 메타기능(Ideational Metafunction)

체계기능언어학에서 개념적 메타기능은 전통적인 문법에서의 명사(구)와 동사(구)와 같은 내용어(content words)로 실현되는데 이러한 언어의 관념적 메타기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특정한 텍스트가 무엇에 대한 것인가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텍스트의 목적이 본인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기에 학습자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 또는 묘사를 위해 적절한 언어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4.1.1 참여자(Participants)

참여자는 주로 명사 또는 명사구로 실현이 되는데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참여자는 I와 you로 각각 665회, 67회 사용되었다. I가 가장 많이 참여자로 사용된 것은 이 글이 자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you가 참여자로 많이 나타난 것은 이 글의 장르가 특정한 맥락에서 말하기를 위해 쓰인 글이기 때문에 저자가 글을 작성할 때 말하는 것처럼 독자를 청자로 의식하며 구어체로 작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대명사 외에 10회 이상 참여자로 사용된 명사들을 살펴보면 저자의 가족, 신분, 취미 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들로 이 글들이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다음 <표 3>의 명사들은 분석자료에서 10회 이상 사용된 단어들이다.

표 3. 자기소개 글에 나타난 참여자 빈도 수

참여자	빈도 수	참여자	빈도 수	참여자	빈도 수	참여자	빈도 수
name	53	father	20	hometown	14	game	11
years	44	hobby	20	introduction	14	home	11
family	41	brother	18	major	14	members	11
university	41	these days	18	personality	14	Deajeon	10
soccer	24	students	17	time	14	dream	10
Nonsan	23	mother	16	department	13	games	10
friends	23	school	16	movies	13	Seoul	10
music	22	future	14	work	13		

가장 많이 나타난 명사는 이름과 나이를 표현하는 명사 name과 years이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명사는 family이며 이와 관련된 명사로 father, brother, mother 등도 10개 이상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은 자기 소개할 때 자신의 나이와 가족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university와 student, school, major, department 등과 같은 본인이 대학생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soccer, music, movies, game(s), hobby 등과 같은 개인의 취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본 연구의 모든 자기 소개 글에서 사용된 명사(구)를 분석한 결과, 51개의 자기소개 글 중 15개의 텍스트만이 자신의 가족관계와 취미, 성격, 친구소개, 앞으로의 계획과 같은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학습자의 텍스트에서는 단순히 본인의 가족과 취미에 대해서만 소개하거나 본인의 학교와 전공만 간략히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의 텍스트의 내용이 상당히 획일적이고 틀에 박힌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또 다른 이유로는 학습자들에게 애초에 하나의 샘플이 주어져서 그 샘플을 모방하는 방식의 글쓰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따라 쓰기의 단순한 작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please introduce yourself in detail”에서 ‘in detail’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소개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이 좀 더 진지하고 독창적으로 본인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 4.1.2 과정(Process)

과정은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며 참여자가 또는 참여자들 간에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동사 또는 동사구로 실현된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기능문법에서 분류한 6가지 유형의 과정들 중 본인의 자질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관계적 과정의 동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은 관계적 과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 (1) I'm a student.
- (2) I'm usually shy.
- (3) My hobby is watching sports and playing computer games.
- (4) My family members are my father, mother, and a younger brother.
- (5) The other family members have black hair.

Thompson(2014)은 관계적 과정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참가자의 특징(attribute)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두 번째의 참여자가 형용사로 실현된다. 위 예문 중 (2)에서 첫 번째 참여자는 I이며 두 번째 참여자에는 shy라는 형용사가 와서 ‘내(I)’가 ‘수줍음이 많은(shy)’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be-동사 am을 통해 두 참여자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역시 (2)와 같은 유형의 관계적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5)의 경우는 동사 have를 통해 첫 번째 참여자와 두 번째 참여자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두 번째 참여자(black hair)는 첫 번째 참여자(The other family members)의 속성 중 하나를 나타내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은 A는 B이다와 같은 형식의 문장으로 (1)과 (3), (4)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Thompson(2014)은 이러한 유형의 관계적 과정은 ‘if x = y, then y = x와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3)을 등식에 맞추어서 표현하면 my hobby = watching sports and playing computer games가 되고 (4)는 my family members = my father, mother, and a younger brother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앞과 뒤 등식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관계적 과정의 의미로 사용된 동사는 be 동사와 have가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관계적 과정의 동사로는 seem, look, become, resemble 등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는 be 동사와 have외에는 다른 관계적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과정은 물질적 과정이다. 다음은 물질적 과정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 (6) I live in Cheonan now.
- (7) You can just call me Grace.
- (8) I was born and raised in Incheon.

물질적 과정은 물리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통해 실현된다. 물질적 과정을 나타내는 문장을 살펴보면 행위자(Actor)가 있고 행위를 당한 개체(Goal)가 있게 된다. (7)을 살펴보면 이 문장에서 행위자는 you가 되고 행위자가 취한 행동(Action)은 call이며 이 행위에 대한 대상은 me가 된다. 하지만 물질적 과정을 나타내는 모든 문장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6)의 경우 물질적 과정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live가 사용됐으며 live의 행위자는 I가 된다. 여기서 나머지 부분인 in Cheonan now는 환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장에는 행위에 대한 대상은 없는 것이다. 때로는 행위자가 문장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8)은 전형적인 수동태형식의 문장으로 행위자는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행위에 대한 대상이 주어 자리에 온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과정은 정신적 과정이다. 물질적 과정은 행위자가 외부적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면 정신적 과정은 참여자가 내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정신적 과정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인 동사를 살펴보면 like, want, love, think, know, feel 등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고자 하자.

- (9) I like delicious food such as pizza, chicken and love shopping.
- (10) And I want to travel to Spain.
- (11) For my goal, I know that I have to work hard.
- (12) I can feel that moment vividly because it is one of the happiest memories in my life.

Halliday와 Matthiessen(2014)은 정신적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위 예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모든 네 가지 유형의 동사를 분석 자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9)의 like와 love는 감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로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소망을 의미하는 want, 인식 동사 know, 지각동사 feel 순으로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행위적 과정과 구두적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이 두 과정의 기능을 하는 예문이다.

- (13) I listen to many pop music these days.
- (14) I usually watch movies or go shopping alone.
- (15) Next, I'll tell you about my family and home.
- (16) I can say cola is my life.

(13)과 (14)는 행위적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행위적 과정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인 동사는 단지 listen, watch, laugh뿐이었다. (15)와 (16)은 구두적 과정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tell, say 동사를 통해 그 의미가 실현되었다. 이 밖에도 speak와 explain이 각각 한 번씩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존재적 과정을 나타내는 there 구문이 있지만 51개의 텍스트 중 단지 19번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은 there구문 문장의 대표적인 예이다.



- (17)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18) There are many famous things in Busan.

4.1.1에서 분석자료에 나타난 명사들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소재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통해 학생들이 앞서 언급한 참여자와 어떤 관계이며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시 말해서, 명사로 실현되는 참여자가 내용의 소재를 설명한다면 동사로 표현되는 다양한 유형의 과정은 참여자들의 관계와 감정, 생각, 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학생들은 절 안의 참여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적 과정과 행동을 묘사하는 유형의 물질적 과정,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정신적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순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목적을 가진 텍스트의 특성상 본인과 언급된 참여자 간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글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텍스트들이 다양한 유형의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텍스트는 다양한 유형의 과정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소수의 유형의 과정들로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한 학습자의 자기소개 글의 전문이다.

- (19) Hello! My name is Chang Kyeong Baek. You can just call me Denny. I'm 26 years old. I'm living in Wi-rye. My hometown is Busan, but I live in Wi-rye now. I am university student. And I am senior now. I used to be negative, but now I try to be more positive. Lately, I've been into online game. The online game is League of Legend. Hopefully, I'll graduate by the end of this year.

위 텍스트의 동사들을 살펴보면 관계적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be*)와 물질적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call, live, try, graduate*)만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글에서 많이 사용된 정신적 과정을 나타내는 *like*와 같은 동사도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다양하지 않은 유형의 과정이 사용됐다는 의미는 이 학습자의 경우 자신에 대한 소개가 매우 한정적이고 또한 흥미롭지 않은 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글을 지도할 때는 단순히 자신의 성격과 취미와 같은 명사로만 글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취미 생활로 무엇을 “하는지”와 같은 과정에도 초점을 맞추어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 4.1.3 환경(Circumstances)

체계기능언어학에서 환경은 과정에서 설명한 그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는데 이는 부사(구) 또는 전치사구를 통하여 실현된다. Thompson(2014)은 환경의 유형을 9가지로 분류하고 설명하였는데 이 중 분석자료에서는 6개 유형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은 6개 유형에 대한 예문이다.

- (20) 장소: I go to Konyang university in Nonsan.  
 (21) 시간: I will improve my English by the end of this year.  
 (22) 동반: I live in Daejeon with my family.  
 (23) 이유: My favorite place is Haeundae. Because I like swimming.  
 (24) 조건: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go to Hogwarts!

(20)에서는 저자가 다니는 학교가 어느 도시에(in Nonsan) 있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21)에서는 저자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언제까지(by the end of this year)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는 저자가 누구와(with my family)와 대전에서 살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23)과 (24)의 부사절은 각각 주절에 대한 이유와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환경으로 분류된 전치사구와 부사절은 아래와 같이 생략되어도 문법적으로나 의미로나 틀린 문장이 되지 않는다.

(20') I go to K university.

(21') I will improve my English.

(22') I live in Daejeon.

(23') My favorite place is Haeundae.

(24') I want to go to Hogwarts!

Halliday와 Matthiessen(2014)이 말한 것처럼 환경은 과정에 있어서 참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해 구체화하거나 풍부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법과 의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짧은 글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비문법적인 문장을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글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구체성과 풍부함이 결여된 짧은 텍스트들이 많았는데 다음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25) My hobby is watching sports and playing computer games. My favorite baseball team is SAMSUNG Lions. SAMSUNG Lions is winning the victory many times. Their records was very amazing. I like to play League of Legend. I also like to listen music. I like Acoustic music. I like the sound of the guitar.

(25)에서는 저자가 본인의 취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각 문장을 살펴보면 전치사구나 부사구(절)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짧은 단문으로 문장을 나열하듯이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글의 응집성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자면, 자신이 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거기서 글을 좀 더 확장하여 왜(why) 그 게임을 좋아하는지 주로 언제(when) 게임을 하는지, 또 얼마나 자주(how often) 하는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면 훨씬 더 독자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학습자들에게는 wh-words를 활용하여 본인들이 표현하는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4.2 대인적 메타기능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언어자원을 통해 대화 참여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자원, 즉 서법(mood)과 조동사(modals)를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과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인 자신과 그 주위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나타내는 언어자원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다.

### 4.2.1 서법과 조동사

Schleppegrell(2004)는 서법은 하나의 문법 자원으로 상호작용성과 협상을 실현시키는 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텍스트를 살펴보면 모두 서술문의 형식으로 쓰였는데 이는 텍스트의 성격이 자신에 대한 묘사 및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잘 실현되는 서술문이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법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글에서 사용된 서술 형식이 격식을 차린 문어체의 형식보다는 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구어체로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26) Have a nice day today. Thank you.

(27)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me, please contact me! haha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글로 작성되었지만 텍스트의 최종 목표는 영어로 발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구어체의 성격을 가진 표현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텍스트가 구어체의 특징을 나타낼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구어체에 흔히 들을 수 있는 *well*과 *you know*와 같은 담화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학생들이 이 글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말로 해야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8) Hello! My name is jihyun choi. you can just call me jii. I have English name called “star”, but I don’t like it. I don’t think it fit me. *well..* I’m 21 years old and I’m living in Ansan.

(29) All you need to know about me is I’m a cola lover. *You know*, when I wake up, I drink some cola. Before and after a hard work, I drink some cola.

Thompson(2014: 70)은 조동사를 통해 특정한 명제에 대한 화자 또는 저자의 태도와 같은 “대인적 분위기 (interpersonal aura)”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자면, 조동사 *may*를 통해 불확실성을 표현하거나 *must*나 *have to*를 통해 어떤 일의 필요성을 호소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를 보면 이러한 대인적 분위기를 의미하는 조동사는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다음은 학습자들의 텍스트에 가장 많이 사용된 조동사 *will*과 *can*의 예이다.

(30) So I will be a good engineer in three years.

(31) I can feel that moment vividly, because it is one of the happiest memories in my life.

(32) I can’t always be sincere, but I always try.

(33) You can just call me young.

가장 많이 사용된 조동사는 *will*(30)로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이야기와 당해연도에 하고자 하는 목표 등 본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대부분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조동사는 *can*으로 (31)-(33)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또는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should*나 *may*, *might*, *would*와 같은 조동사가 사용되었지만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will*과 *can*의 사용 빈도 수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전체 텍스트에 나타난 조동사 빈도 수

조동사	빈도 수	조동사	빈도 수
will	49	may	2
can	33	could	2
have to	6	might	1
would	3	should	1

다양한 조동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텍스트의 특성 상 학생들이 자신에 대하여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글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특정한 일과 사건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나 태도를 표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available) 언어자원이 학습자들에게 없거나, 있지만 학습자들이 그 이용가능한 언어자원을 주어진 맥락에서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자원에 대한 활용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은 자기소개 글을 마무리할 때 본인이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글을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단순히 'I will work at'의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하는게 좋을지 제안을 스스로에게 함으로써 should와 같은 조동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4.2.2 평가

대인적 메타기능을 하는 언어자원 중 본 연구자료에서 자주 사용된 것 중 하나는 특정한 사람이나 일, 사건 등의 가치나 특징을 평가(appraisal)하는 언어자원이다. Thompson(2014)이 지적한 바와 같이 평가와 관련된 언어자원은 문법적 요소로 표현되기보다는 어휘적 요소로 대부분 평가의미가 실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본인의 성격을 설명한 글인데 구체적인 어휘(social, outgoing, timid, kind, friendly, bright, positive)를 사용하여 본인의 성격을 평가하여 전달하고 있다.

- (34) lastly, I am social and outgoing because I likes party that many people attend and social drinking with my friends.
- (35) as for my personality, I guess, I am timid but kind and friendly.

위 두 개의 예문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된 대표적인 표현방식으로 (34)의 경우, 자신의 성격이 활발하다고 사실적으로(am) 표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왜 활발하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반면, (35)에서는 자신의 성격을 설명하기 전 I guess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에 대한 평가에 대해 (34)보다는 확실성 또는 자신감이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I guess 외에도 I think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성격을 묘사한 것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닌 가족 또는 친구에 대한 평가를 담은 내용이다.

- (36) My family consists of a reliable father, a friendly mother, and my younger sister, who is my first priority.
- (37) Friends and professors are good for me; they are cool.
- (38) I raise a puppy whose name is Kim Tan, and she is very charming.
- (39) My favorite fruit is grape. It is so sweet.

(36)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사람들인지 본인의 생각을 각각 reliable과 friendly라는 형용사로 소개하고 있으며 (37)에서는 자신이 속해있는 학과 교수와 친구들에 대한 평가를 good와 cool같은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사람 외에도 무생물에 대한 평가도 찾아볼 수 있는데 (38)은 자신이 키르는 강아지를 소개하면서 그가 매력적(charming)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39)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

일인 포도가 달다(sweet)라는 맛의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텍스트에 나타난 서법과 조동사, 평가어를 살펴 보면서 저자가 독자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거의 모든 글은 자신에 대한 소개글을 서술하는 평서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독자에게 친근하게 개인적으로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쓰고 있는 글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될지에 따라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 4.3 텍스트적 메타기능

지금까지는 명사나 동사, 조동사, 전치사구 등과 같은 각각의 문법 자원을 통해 글의 내용과 글쓴이 즉 학생들의 태도를 살펴 보았다면 여기서는 글의 텍스트적 메타기능의 분석을 통해 글 전체의 구성을 살펴보고 어떻게 글이 전개되어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텍스트의 시작점(point of departure)을 주제(theme)라고 하고 제시된 주제들이 어떻게 일관성있게 확장되는지를 텍스트적 기능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의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의 목적에 따라 거의 모든 텍스트의 시작점은 I 또는 My로 시작한다. 이는 이 글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학습자 자신의 대한 글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0) *I like the sound of the guitar.*

(41) *My hobbies are taking pictures and listening to music.*

(40)과 (41)의 예문 모두 문장의 주어와 주제가 동일하다. Halliday와 Matthiessen(2014)은 이렇게 절의 주제와 문장의 주어가 일치할 때 그 주제는 무표적인(unmarked) 주제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반대로 다음은 유표적인(marked) 주제의 예이다.

(42) **These days** I absolutely love milk tea. I always drink milk tea whenever I go to a café. I especially like drinking milk tea while watching movies in my free time. **As for my personality**, I'm an outgoing person. I have a large circle of friends and love to make new friends. **In the future**, I hope to work for a famous hotel.

(42)의 문장들은 (40)과 (41)의 문장과는 달리 절의 시작이 대명사 I가 아닌 특정한 기간(These days, In the future)이나 다음 절의 내용(my personality)으로 시작한다. 이처럼 저자나 화자가 유표적인 주제로 글 또는 말을 시작하는 것은 저자 또는 화자가 전에 한 글 또는 말에 대하여 대조적인 내용을 제시하려고 할 때나 좀 더 글 또는 말의 전개를 달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Halliday and Maathiessen, 2014; Thompson, 2014).

사실상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주제로는 (40)과 (41)에서 처럼 하나의 주제가 아닌 하나 이상의 주제(multiple theme)이다. 다음의 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43) *Last I introduce my family and home.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There are the father, mother and younger brother. I love my family and my family loves me too. All members of my family were born and raised in Daegu. So I like Daegu. But I don't like Summer in Daegu because it is very hot weather.*



(43)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주제(I, my family, I, I)앞에 또 다른 하나의 주제(last, and, so, but)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주제 자리에 접속사 and, so, but 등이 와서 절과 절 사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선행 연구(Kim, 2003; Woo, 201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은 and, so, but과 같은 등위접속사에만 과용(overuse)하여 절을 연결하는 양상을 보였다.

거의 모든 텍스트의 시작점은 자기 자신으로 시작되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의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다음 절에 이어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44) 1 My name is Park Subin.  
 2 I'm from Chongcheongnam-do Cheonan.  
 3 I'm twenty years old.  
 4 I go to Konyang University in Nonsan.  
 5 I'm currently in my first year.

(44)의 구성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며 글이 시작되고 이후의 4개의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서 일련의 절을 나열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 전개 방식(thematic development patterns)을 그림(Paltridge and Burton, 2000)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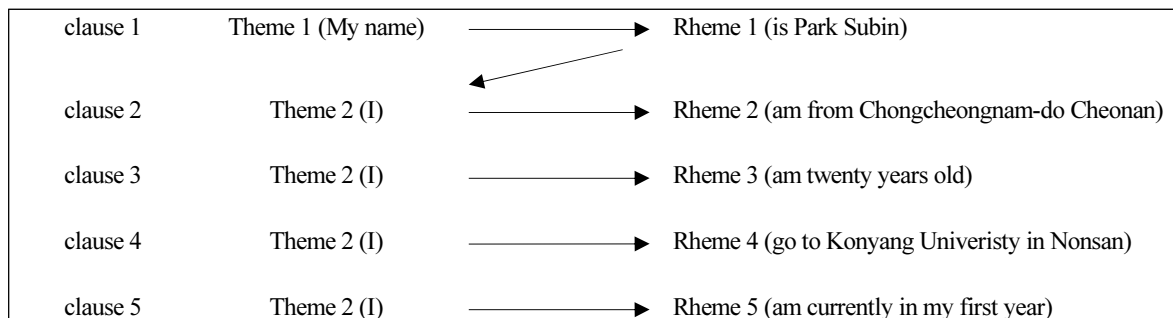


그림 2. Constant Theme pattern (Martin & Rothery, 1986 as cited in Paltridge and Burton, 2000: 140)

하지만 (44)에서 주제의 전개 방식이 하나의 주제가 일련의 문장으로 나열되었지만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또 다른 주제 전개방식의 패턴, 즉 zig-zag 패턴(Eggins, 2004)이 혼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첫 두 문장만을 zig-zag 패턴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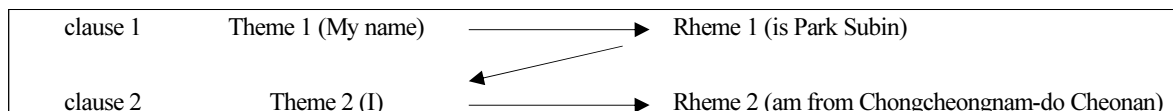


그림 3. Zig-zag thematic pattern (Eggins, 2004)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소개한 마지막 주제 전개 방식의 패턴은 하나의 주제가 여러 개의 평언(rheme)을 제시하고 이어서 제시된 평언들이 다음의 절에서 주제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형태이다. 이러한 방식의 전개는 많지는 않지만 가족 소개

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종종 볼 수 있다. (45)는 한 학생이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는 부분이고 이어서 <그림 3>은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 (45) 1 a. They are father, mother, brother and me.  
 2 b. I have one older brother.  
 3 c. My father is a official.  
 4 d. and my mother is a managing director of a small company.  
 5 e. My brother recently returned to Korea after working for a Chinese company for 7 years.  
 6 f. So my brother is very good at Chine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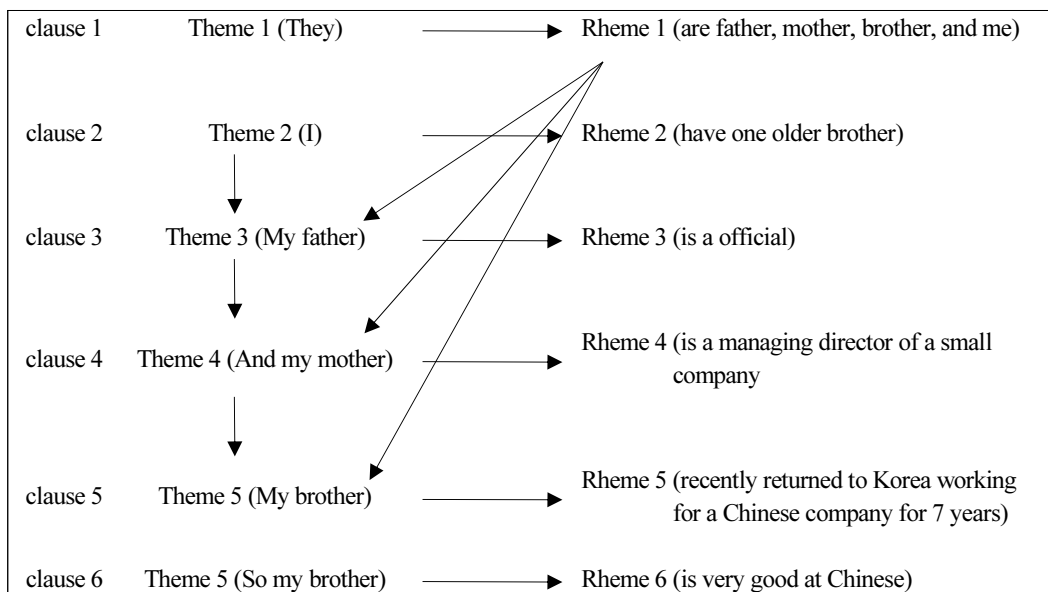


그림 4. Multiple theme pattern (Egins, 2004)

(45)에서는 자신의 가족의 일원(father, mother, bother and me)을 먼저 나열한 후 다음 절에서 그 가족의 일원을 한 명씩 소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45a)에서 평언으로 제시됐던 father와 mother, brother가 각각 (45c)와 (45d), (45e-f)의 주체로 전개해 가족에 대한 소개글을 확장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위에서 언급한 특정한 일관성 있는 전개 방식의 패턴을 보이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열거하듯이 구성하고 있는 글들이 많았다. 다음은 한 학습자의 자기소개 글의 전문이다.

- (46) a. My name is Myungse Kim.  
 b. I live in Anyang, Gyeonggi-do.  
 c. There are 4 people in my family.  
 d. My family members are father, mother, younger sister, me and a puppy.  
 e. My family moved three times.

- f. My hobby is exercising.
- g. Also, I like to watch movies.
- h. The person I respect the most is my parents.
- i. And my dream is to be a soldier.
- j. I am currently attending Konyang University.
- k. I am developing my dream while attending university.

(46)의 자기소개 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이름(46a)과 거주지(46b), 가족(46c-e, h), 취미(46f-g), 학교(46j), 장래희망(46i, k)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에 대한 글의 전개외에는 거의 각 소재에 대해 한 문장씩으로 아주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소재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서술한 것이 아니어서 글의 응집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46i)에서 자신의 장래 희망이 군인이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 문장이 아닌 (46k)에서 그 꿈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있어서 문장과 문장사이의 응집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소개에서도 (46c)에서 본인의 가족이 모두 4명이라고 소개하고 다음으로 그 4명이 누구인지(46d), 온 가족이 모두 3번 이사를 다녔다는 이야기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46h)에서 다시 자신의 부모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좀 더 응집성과 일관성 있는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주제 전개 방식들을 학습자들에게 소개하고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분석 틀을 토대로 대학생들이 학교 영어 수업의 한 과제로 쓴 자기소개글을 분석하였다. 글에서 사용된 언어자원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들이 의미 생성을 위해 어떤 언어자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언어 자원이 글의 목적과 맥락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언어의 세 가지 메타기능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관념적 메타기능을 위해 사용된 언어자원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대부분 교수자가 제시한 샘플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 즉, 가족, 취미, 직업 등에 국한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모방은 필수적인 학습 방법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글쓰기와 말하기와 같은 생산적인 언어 활동에서는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언어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 글 또는 목적에 맞는 내용과 관련된 언어자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텍스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며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wh-words를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하고 정리된 내용을 전치사구 또는 부사절을 사용하여 의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살펴 본 메타기능으로는 대인적 메타기능으로 언어를 통해 개인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의 텍스트에서는 well과 you know와 같은 구어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이 텍스트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말로 표현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친근한 어투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대인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언어자원인 조동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냈다. Will의 사용으로 미래의 일에 대한 확실성 또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의

다른 조동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좀 더 다양한 조동사를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일 또는 사건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태도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조동사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문법적 요소인 조동사가 의미를 생성하는 자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문법이 하나의 규칙 집합체가 아닌 의미를 생산하는 언어자원임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텍스트를 텍스트적 메타기능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특히 학습자들이 글의 주제를 어디서 시작하여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텍스트의 전개 방식은 기존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소개된 전개 방식인 *constant theme pattern*, *zig-zag theme pattern*, *multiple theme pattern*을 간혹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러한 패턴은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텍스트가 일관성이 결여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관성있는 글 또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먼저 글 또는 말의 시작점인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용할 수 패턴들을 염두에 두고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지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언어를 읽기와 쓰기, 듣기, 말하기와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이런 네 가지의 영역을 전체로(as a whole)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어휘나 문법을 단순히 암기해야 할 단어 또는 규칙 집합체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들이 의미를 생산해내는 필수적인 언어자원임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교육의 초점이 단지 어휘와 문법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학습자가 목적과 사회적 맥락에 맞게 적절한 어휘와 문법요소를 선택하여 원하는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교육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체계기능언어학은 이러한 방향의 교육 목표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 특히 언어 평가와 관련하여 좀 더 실질적이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다만, 체계기능언어학의 분석은 Eggins(2004)가 지적했듯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짧은 글도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특히 영어 학습자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이관규. 2018.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성과 텍스트 평가. 『문법 교육』 34, 195-222.
- 이승연. 2016. 사회과 텍스트 분석을 위한 비판적 담화 분석 방법의 이용: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8, 173-224.
- Achugar, M., M. J. Schleppegrell, and T. Oteiza. 2007. Engaging Teachers in Language Analysis: A Functional Linguistics Approach to Reflective Literacy. *English Teaching: Practice and Critique* 6.2, 8-24.
- Derewianka, B. and P. Jones. 2011. "From Traditional Grammar to Functional Grammar: Bridging the Divide." In C. Coffin(ed.), *Language support in EAL contexts. Why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pecial Issue of NALDIC Quarterly)*. NALDIC, Reading, UK.
- Eggins, S. 2004.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London: Continuum.
- Fang, Z. 2004. Scientific Literacy: A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Perspective. *Issues and Trends*. 335-347.
- Gebhard, M. 2010. Teacher Education in Changing Times: A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 Perspective. *TESOL Quarterly*, 44.4, 797-803.

- Halliday, M. A. K.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1st ed.).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 A. K. 1989. *Spoken and Written Language*.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day, M. A. K.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2nd ed.).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 A. K.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3rd ed.).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 A. K., and C. Matthiessen.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4th ed.). London: Routledge.
- Kim, M. 2003. Coherence and Cohesion in the Narratives of Korean EFL Learners. *Discourse and Cognition* 10.3, 31-56.
- Martin, J. R. 2009. Genre and Language Learning. *Linguistics and Education* 20, 10-21.
- Paltridge, B. and J. Burton. 2000. *Making Sense of Discourse Analysis*. Antipodean Educational Enterprises.
- Schleppegrell, M. J. 1998. Grammar as Resource: Writing a Description. *Research on the Teaching of English*. 32.3, 182-211.
- Schleppegrell, M. J. 2004. *The Language of Schooling*. Mahwah, N.J.: Erlbaum.
- Thompson, G. 2014.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3rd ed.). Oxon: Routledge.
- Woo, S. J. 2018. A Corpus-based Analysis of Discourse Function of So in the Spoken Monologue of EFL Learners. *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23.3, 165-188.

우수정, 교수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기초교육학부  
E-mail: suewoo@konyang.ac.kr